

학교구강보건교육적 측면에서 본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김 중 배

국민의 구강건강을 보호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복지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강보건사업은 대상에 따라 모자구강보건 사업, 학교구강보건사업, 성인구강보건 사업, 노인구강보건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특히,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앞으로 우리 나라의 주인이 될 2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또한, 구강에 빈발하여 구강건강장애를 많이 유발시키는 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부정교합은 국민학교 학령기에 빈발하고, 치주병도 치은염으로 국민학교 졸업기에 대개 발생되어, 일생의 구강건강기틀은 국민학교 학령기에 마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강보건사업 중에서도 학교구강보건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예방사업과 치료사업 및 구강보건교육사업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사업은 각각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3대사업을 병행하여 균형되게 개발시켜야 하며, 특히, 구강보건교육사업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예방사업으로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을 개발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치과진찰과 치료를 하는 학교 계속 구강건강관리사업도 치료사업으로 개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1900년대 초엽부터 개발된 불소이용법은 치아우식증 예방에 일대 전기를 이룩하였다. 불소이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음료수에 불소를 함유시키는 상수도수불화법이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을 청주와 진해 두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편, 상수도수불화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법이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치과의사나 구강위생사등의 전문인력에 의해서 실시되는 불소국소도포법을 개량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학급단위로 잇솔질을 하고 0.05%불화소다 용액으로 양치를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종래의 전문가불소국소도포법에 비해 구강보건인력과 진료기구가 필요없어 경제적이며, 양치시간이 짧아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매일 실시함으로써 바른 잇솔질 방법을 습관

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구강보건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효과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도시지역에서는 상수도수불화법이 비도시지역에서는 불소용액양치사업이 실천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결론하고, 두가지 사업을 적절히 발전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경기도 연평중학교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1978년 한국구강보건협회의 후원으로 전국에서 13개 국민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되어 학동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그런데 1981년 이후부터는 전국의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자율적으로 본 사업을 기획하여 실시하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1983년 7월 현재로 전국에는 도합 90여개 학교에서 4만 7천여명의 학생들이 본 사업의 혜택을 입고 있다. 한편, 보건사회부에서도 본 사업이 효과적인 구강병 예방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용이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임을 인식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확대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1차년도 금년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군지역에서 1개 국민학교, 2차년도 84년에는 1개 군지역당 2개 국민학교, 3차년도 85년에는 1개군지역당 3개국민학교 순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발전시켜 1989년에는 전국의 모든 군지역 국민학교 학동들이 본 사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문교부등의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불소용액양치 사업은 상수도수불화사업과 함께 우리나라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양대 근간을 이루어 나가리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은 학교구강보건교육사업 및 구강병 예방사업으로서의 두가지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중요한 학교보건사업의 한가지로 채택되어야 하며, 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의 목적

- 1) 불소화합물을 이용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한다.
- 2) 잇솔질을 바르게 시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

방한다.

- 3) 바른 잇솔질 방법을 교습시킨다.
- 4) 구강보전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관심과 인식을 증대시켜, 합리적인 구강건강관리습성을 함양시킨다.
- 5) 학교구강병예방사업으로 발전시킨다.

2.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방법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일 중식 직후에 회진법으로 잇솔질을 하게 한 다음, 0.05%불화소다용액 약 10ml로 1분간씩 양치를 하게 한다.

3.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관리

학교장 책임하에 양호교사가 전교생이 불소용액양치를 하는 데에 필요한 불소용액을 매일 제조하여 각 학급에 분배하고, 각 학급 담임교사는 아동들에게 학급단위로 매일 잇솔질을 하게 하고, 불소용액으로 양치를 하게 한다. 아울러 학교치의사가 매 학년초에 양호교사 및 담임교사에게 불소용액양치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학교치의사 혹은 구강위생사가 수시로 불소용

액양치를 하는 아동들을 관찰하며, 아동들의 그릇된 잇솔질방법을 올바르게 교습한다.

4.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평가

1년을 주기로, 학교장, 교감, 담임교사, 양호교사 학교치의사등이 사업효과 평가, 수혜자반응평가, 사업형식 평가, 비용효과분석등의 사업평가를 하여 이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5.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의 장점

- 1) 단시간 내에 불화물의 도포가 가능하다.
- 2)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 3) 전문적 기술이 필요치 않다.
- 4)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다.
- 5) 특수 기구와 장비가 필요치 않다.
- 6) 도포용액을 쉽게 만들 수 있다.
- 7) 약간의 교육훈련을 받은 비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다.
- 8) 아동들의 책임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